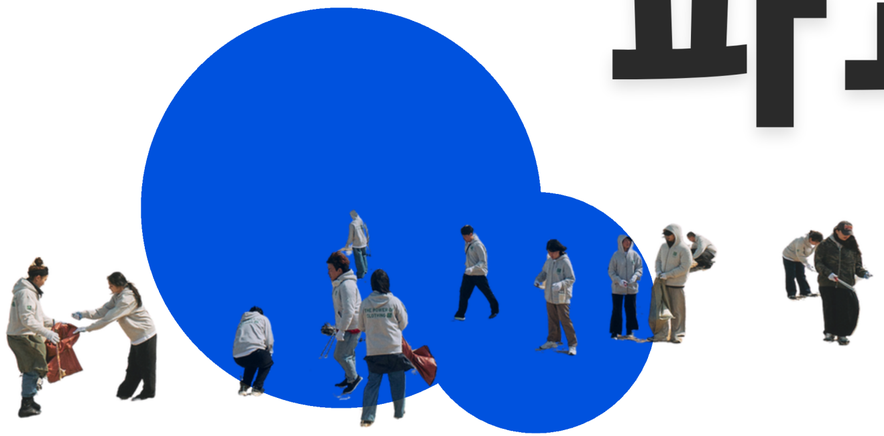
2025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도민과 함께 실천하는 플라스틱 제로 전략



ZERO WASTE 파괴

환경을 위한 우리의 선택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RE:EARTH

회장 김현영

ZERO WASTE
파괴
환경을 위한 우리의 선택

CONTENT

1. INTRODOCTION
2. PROBLEM
3. ZERO-WASTE 파괴?
- ZERO-WASTE 파괴
- ???-WASTE CAMPUS
4. 대학에서 지역으로
5. 성과 및 도전 가능성
- 성과 및 도전 가능성
- 피드백

INTRODUCTION

1. 발제자 소개 : WHO ARE YOU
2.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RE:EARTH

WHO ARE YOU

3년차 육지따이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RE:EARTH 회장

우연을 의미로 바꾸고,
흐름을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

PROFILE

김현영 | 2000.09.01. SEOUL



2025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도민과 함께 실천하는 플라스틱 제로 전략

RE:EARTH

2019년도 설립

다시 지구를 생각하고 아끼자



= RE 다시 + EARTH 지구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청년의 실천

지속 가능한 내일을 향한 첫 걸음

네트워킹

제로웨이스트 플로깅

MOU

제주올레

환경동아리

쓰레기 없는 제주섬

동아리원

110명

1.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연합동아리

- 제주대학교
- 제주한라대학교
- 제주 청년

PRO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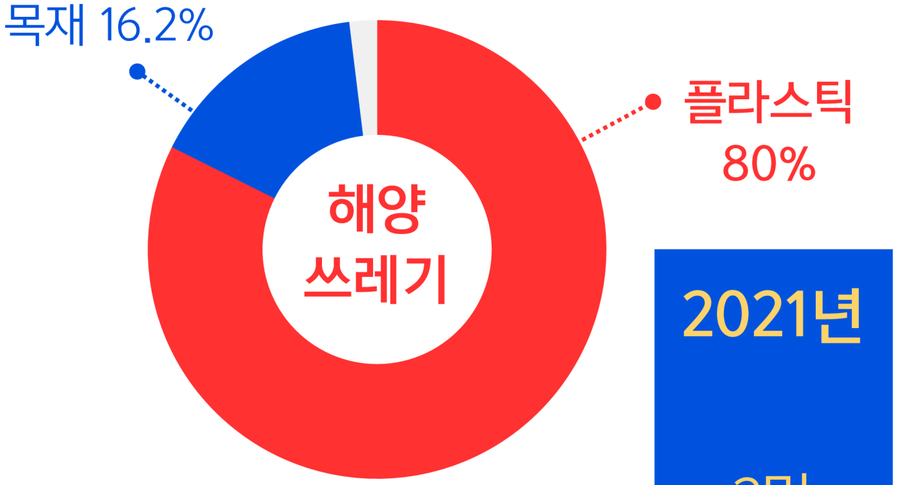
1. 해양쓰레기

문제 인식 해양쓰레기 2만톤 中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 80%

제주 바다에 버려진 해양쓰레기, 그 양이 무려 '2만톤↑'



제주도 바다와 해안가에 버려진 **해양쓰레기의 양이 2만톤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3년 사이 갑절 이상 늘어난



2019년	2020년	2021년
1만 1760톤	1만 6622톤	2만 1489톤

문제 인식 해양쓰레기 2만톤 中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 80%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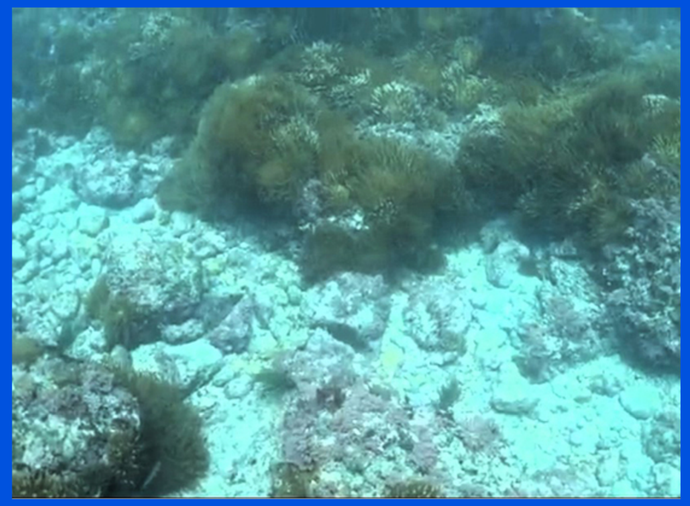
해양쓰레기로 고통받는 해양 생물들



해양쓰레기로 오염된 바다



제주 바다 사막화! 갯녹음 현상 심화



청년 세대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는 주체

지구의 날, 세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원준희 수습기자 | 입력 2025.04.16 10:36 | 수정 2025.04.29 13:01 | 댓글 0

성장이 아닌 공존의 방식
"딱딱한 의무보다 재미로"
캠퍼스 내 환경 정책 실현



환경동아리 're-earth'가 버려진 부표와 쓰레기로 가득했던 삼양 해안가에서 플로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환경동아리 're-earth' 제공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음력 5월 26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三맵 '주목'

건설경기 침체, 1차산업 위기, 교통난·쓰레기난·상하수도 처리난 등을 비롯한 각종 경제·사회분야는 물론 제주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노력도 임정부분 개선 및 성과 도출이 이뤄져야 할 시기를 맞았다.

이와 함께 오 도정이 지난 전반기에 발표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그린수소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에너지 대전환 추진은 되레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각종 에너지 시설 확충에 따라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또한 도내 관광업계의 반발로 환경보전분담금 부과 문제도 답보 상태다. 개발과 보전의 상충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사업 추진에 따른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2년을 도민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에 1일 도민과 함께 도정 전반기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도정 방향을 제시하며, 도민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각오를 다진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본관 탐라홀에서 공직자 대상의 7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민선 8기 출범 2주년 기념 일정에 나선다. 이어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의 소회와 후반기 2년의 도정 운영 방향을 도민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2주년 기념행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후 7~9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위대한 도민시대, 함께 그리는 새로운 미래' 행사를 열어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선 8기 오 도정은 후반기 업무 서막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오는 5일 발표 예정인 정기인사(7일자)와 조만간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장 임명 절차를 밟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지난달 28일 한라일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1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31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 3개 기관·단체-개인 7명 영예

"환경 보전 정신 전파하는 계기 되길…"

자연 환경 보전에 앞장 선 개인과 단체가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제31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달 28일 한라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한라환경대상은 환경 보전을 위해 헌신한 기관과 단체, 학교, 학생 및 개인 등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는 3개 기관·단체와 개인 7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 관련기사 12면

한라일보 김한옥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는 5000만 국민이 사랑하는 지역이다. 천혜의 환경을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그 일을 수상한 모든 분들이 앞장서 해줘 제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축하했다.

김예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축사에서 "오늘의 시상식이 자원 절약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 보전 정신을 전파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오경규 교육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숙명"이라며 "환경 보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내며, 한라환경대상을 중심으로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1회 한라환경대상은 ▷한라환경대상 ▷한라환경실천상 ▷한라환경지킴이상 ▷한라환경 UCC 공모전 등 총 4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대상의 영예는 오종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조천고등학교에 재직하는 오 사무관은 급식 과정에서 손도 안 댄 음식, 이른바 '잔식'이 전부 쓰레기로 처리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잔식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잔반 처리 비용을 절감, 환경 보전과 급식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오 사무관에겐 환경부장관상과 3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한라환경실천상 최우수상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RE:EARTH'가, 우수상은 정효린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 한라환경지킴이상 최우수상 학교 부문 수상자로는 표선초등학교(교장 송성환)가 선정됐고, 교사 부문에선 화순오성초등학교 백혁 교사가 수상했다.

이와함께 한라환경 UCC공모에서는 ▶일반 및 대학 최우수 ▷임지은(검바위초등학교) ▶일반 및 대학 우수 ▷손시현(화운유치원) ▶고등부 최우수 ▷정동윤, 권서진, 김수(제주밤바다팀) ▶중등부 최우수 ▷김아현(안덕중학교) ▶초등부 최우수 ▷심윤화(인화초등학교) 학생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상민기자



제주 환경 사랑하고 행동하는 청년들

한라환경실천상 최우수
제주대 환경동아리 'RE:EARTH'

도내 곳곳서 '플로깅' 활동
SNS 이벤트 등 동참 홍보

제31회 한라환경대상 환경실천상 부문 최우수상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RE:EARTH'(회장 전성환·이하 리얼스·사진)가 수상했다.

리얼스는 제주대 동아리연합회 소속 정규동아리로 2021년부터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환경을 사랑하는 15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실천이 제주도민과 전 국민까지 나아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리얼스는 제주 해안 곳곳을 다니며 환경 정화 플로깅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00회 이상의 플로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바다의 오염 수준 및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해양 모니터링도 2개월마다 1회 이상씩 하고 있다.

또 이들은 공식 인스타그램 및 교내 바다 사진 전시 등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양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4·3역사기행 및 플로깅, 도내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1학교 1바다 가꾸기 프로젝트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전성환 회장은 "한 줌의 갈파래, 한 방울의 땀이 모여 우리의 작은 노력이 언젠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생각하며 제주 바다에 몰려오는 해양쓰레기들을 줍고 또 줍고 있다"며 "MZ세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해졌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환경'을 주제로 앞으로도 리얼스는 제주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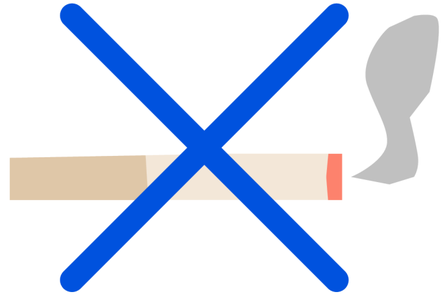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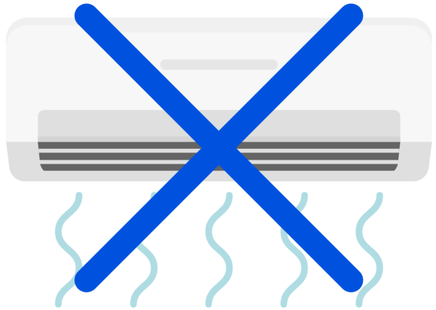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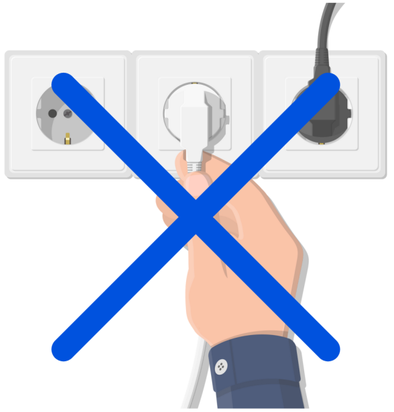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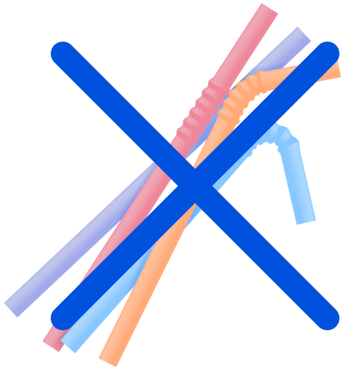
ZERO-WASTE 파괴?

1. ZERO-WASTE 파괴
2. ???-WASTE
3. ???-WASTE CAMPUS

ZERO WASTE 파괴

환경




WHY
왜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ZERO WASTE 파괴

청년들에게 환경은 많이 딱딱하고, 선뜻 다가가기 힘든 주제

WHY?

- 직접적인 피해를 느끼지 못해서
- ‘나 하나쯤은’과 같은 안일한 태도
- 일상에서 환경보다 편의성 우선
  (일회용 렌즈, 물티슈 등)

→ **ZERO에 대한 무게감, 강박**

LOW-WASTE





WHAT 무엇을 — **HOW** 어떻게 — **WHY** 왜

10 → 0 ✕

10 → 7 — 3 — 0 ✓

ZERO가 아닌 SLOW


WHY
왜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LOW-WASTE

LOW-WASTE 목표

청년의 일상과 지역, 그리고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을 청년 세대인 우리들에게 녹여내는 것

첫째, 생활 속 감축



둘째, 지역 연계



셋째, 문화 확산




WHY
왜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LOW-WASTE CAMPUS



교내 사진동아리 'JPC'와 협업 출사 프로젝트

버려지는 양말목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캠페인





제로-웨이스트 포틀럭 피크닉

리얼스 배 제로-웨이스트 체육대회



대학에서 지역으로

1. FLOGGING
2. 축제·지역행사 연계 환경 캠페인
3. 플라스틱 감축

FLOGGING



2025 유니클로 제주 한 바퀴 플로깅 1회차



2024 모다들엉 봉그깅



중앙여고 친구들과 삼양 플로깅



KB증권 change Our Life 캠페인 in 제주

FLOGGING



이니스프리모음재단 구멍 갈파래 플로깅



제주MBC 그린페스타 플로깅



JDC 닭머르 해안길 플로깅



관광대 로타랙트 연합 플로깅 2회차

축제·지역행사 연계 환경 캠페인



상상 그리너스 그라운드 QR 전시 부스 운영



해양 쓰레기를 활용한 쉼터 만들기 프로젝트



식목일 기념, 다육이 나눔 행사



폼 좋다 : 유니폼 리폼 프로젝트

플라스틱 감축



1회용 컵 보증금제 청년 소도리단 거점 운영



리얼스 X 로컬 카페 제휴



플라스틱 장례식 행진



2025 유니클로 파트너

성과 및 도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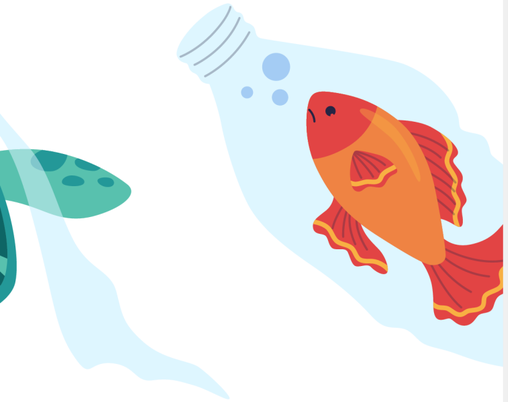
1. 성과
2. 피드백
3. 도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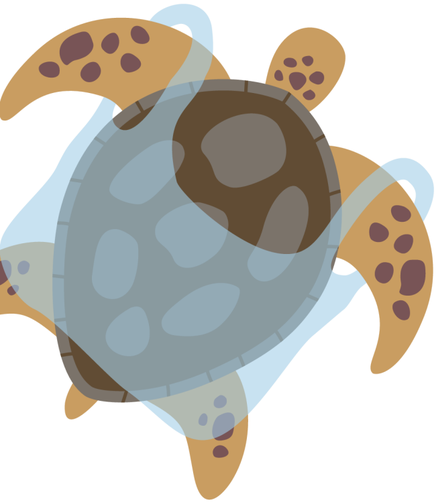
성과 및 도전 가능성

	플라스틱 수거량
2025년 1월	삼양 플로깅 1회차	27.46 kg
2025년 2월	삼양 플로깅 2회차	32.92 kg
2025년 3월	삼양 플로깅 3회차	18.25 kg	유니클로 플로깅 1회차	57.01 kg
2025년 4월	유니클로 플로깅 2회차	24.53 kg
2025년 5월	삼양 플로깅 4회차	46.31 kg	유니클로 플로깅 3회차	54.7 kg
2025년 6월	유니클로 플로깅 4회차	14.77 kg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8회, **약 313.95kg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플로깅에서 150명과 함께하였습니다.

피드백





혼자 플로깅을 할 때는 쓰레기를 줍는 것에 그쳤는데 모니터링을 진행해보니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해양쓰레기가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버려야하는지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좋았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해서 즐겁고 더 깨끗하게 플로깅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평소에는 쉽게 지나쳤을텐데 직접 줍고 조금은 깨끗해진 바다를 보니 뿌듯했어요. 쓰레기를 생각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플라스틱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쓰레기 종류에 따른 구별법을 더 알아봐야겠어요.

처음 해보는데 굉장히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해변에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아서 당황스러웠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니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시험기간이라 집과 학교를 반복하다보면 시간이 다 가요. 하지만 리얼스활동은 바닷바람을 쐴 수 있어요.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플로깅을 통해 환경 정화에도 힘쓸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THANK YOU

RE:EARTH
INSTAGRAM

@re_earth_2025

리얼스에 들어오게 된 **우연을 의미로** 바꾸고,
흐름을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저희들의 선택을 지켜봐주세요!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RE:EARTH

회장 김현영